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은상 당선작>

작품명: 경남의 씨름왕! 김짜지 장사

작가명: 김준래

기획의도: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전통문화는 너무 많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시각을 좀 더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통 스포츠분야의 스토리텔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통 스포츠 분야에 애정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일제시대의 전설적인 씨름선수였던 경남의 김짜지 장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소재의 배경 및 기획의도

경남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전통문화는 너무 많아 이루 셀수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시각을 좀 더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전통 스포츠분야의 스토리텔링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전통 스포츠 분야에 애정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일제시대의 전설적인 씨름선수였던 경남의 김짜지 장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김짜지 장사에 대한 사료가 너무 부족하여 이번 스토리텔링에 충분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관련 배경 사진들도 첨부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는 김짜지 장사가 살았던 일제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경남이 낳은 시대의 스포츠 영웅이 식민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김짜지 장사가 일제시대의 전설적 씨름선수였다는 점외에는 김짜지 장사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었던 상황에서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모티브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느날 우연히 신문에서 본 기사에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로 유명해진 하야시(일본 주먹패의 두목으로 실존 인물)가 일제시대때 대규모 스모(일본 씨름) 시범단을 이끌고 조선 방문하였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사실과 경남의 전설적 영웅을 활용하여 경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는다면 스토리의 좋은 소재가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스토리의 재미를 위해 일제시대의 전설적인 주먹인 김두한과 조선의 주먹패들을 등장시켜 씨름 시합과 어우러진 조선과 일본의 주먹패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김짜지 - 본 스토리의 주인공. 씨름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천부적인 씨름선수이다.

김바위 - 김짜지의 아버지. 탁월한 씨름선수였으나 일본인들의 계략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이강산 - 김바위의 친구. 역시 뛰어난 씨름선수이나 일본에서 불구가 되어 돌아온후 친구의 복수를 꿈꾸며 김짜지를 지도한다.

이엄지 - 이강산의 딸. 어릴 적부터 김짜지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김두한 - 종로의 주먹패 두목. 김짜지를 부하로 맞아 들인 후 씨름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배려해 주고 김짜지가 조선의 씨름영웅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한다.

니시무라 - 김바위와 이강산을 과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일본인 장사꾼. 간교한 계략으로 김짜지에게까지 피해를 주나 결국 이강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스즈끼 - 과거 경기 중 고의적으로 김바위를 죽이고 이강산을 불구로 만들었던 일본 최고의 스모선수.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스모선수로 키워 김짜지와 대결하게 만든다.

야마시타 - 스즈끼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 일본 최고의 스모선수로 성장하나 김짜지에 패배한다

하야시 - 김두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본 주먹패의 두목. 씨름과 스모의 이중격투기대회를 개최시켜 조선의 기를 꺾으려 하나 오히려 망신을 당한다

스토리텔링

배경은 1930년대 말, 일본의 조선강점기 말로서 일제의 악랄함이 점차 그 도를 더

해가던 시기이다. 주인공인 김짜지는 경남에서 태어난 청년으로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제 갓 20세가 넘는 험한장부이다. 김짜지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돈을 벌어야 했던 김짜지는 어리지만 효성이 지극하다. 낮에는 나무를 해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병든 어머니를 수발한다. 가끔씩 김짜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머니는 말하기를 꺼려하면서 돈 벌러 일본에 갔다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김짜지의 유일한 낙은 친구들과 모여 씨름을 하거나 옆 마을에 사는 여자친구인 이엄지와 사랑을 키우는 일이다. 이엄지의 아버지인 이강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바위와 예전부터 막역한 친구사이였고 예전에는 아버지인 김바위와 같이 유명한 씨름 선수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하여 김짜지의 아버지인 김바위와 일본에 갔다온 뒤 김바위는 싸늘한 유골이 되어 돌아왔고 자신은 다리가 불구가 되어 돌아온 뒤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은채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딸인 엄지를 키우는데 전력을 다한다.

이강산은 김짜지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는 김짜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채 입을 다문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짜지가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는 한창 일본인 순사들의 공출(일본인들의 강제 착취)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짜지가 나무를 해서 어렵사리 마련한 곡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병든 어머니가 마당에까지 나와 순사들에게 매달리지만 순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김짜지의 어머니를 짓밟는다.

그런 모습을 보며 눈이 뒤집혀진 김짜지는 그 엄청난 힘으로 순식간에 순사들을 집어 던지지만 이윽고 도착한 다른 순사들이 총으로 위협을 하는 바람에 붙잡히고 만다.

감옥에 갇힌 김짜지는 일본 순사들의 심한 고문을 받는다. 몇일 후 겨우 면회가 허락되고 면회 온 이강산과 이엄지의 입에서 어머니가 일본순사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과 김짜지가 잡혀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분노로 몸을 떠난다.

1개월 뒤, 김짜지가 감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날 저녁, 절망에 빠진 김짜지에게 이강산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 이강산의 김짜지 아버지에 대한 회상 장면(과거형)

원래 김짜지의 아버지 김바위는 경남의 유명한 씨름선수였다. 일제시대 초기에 개최된 전국 조선씨름대회에서 천하장사가 되어 그 이름을 조선 방방곡곡에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시대 중기인 1920년대에 들어서 그들은 조선의 정신과 혼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기 시작했고 조선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대회도 일체 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자신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고향땅인 경남에서 농사와 어업으로 근근이 살고 있었다. 김바위의 유일한 낙이라면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이며 역시 유명한 씨름선수인 이강산과 서로 씨름연습을 하고 막걸리를 걸치면서 마음속에 쌓인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분노를 샅이는 길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장가를 가서 각자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선의 일본인 주먹패와 결탁하여 조선을 자기 땅 드나들 듯이 자주 왕래하던 일본인 장사꾼 니시무라가 김바위와 이강산의 명성을 듣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도 벌고 조선에 대한 간접적인 복수도 하려는 교활한 생각을 한다. 니시무라가 김바위와 이강산에게 접근하던 시기는 일본에서 얼마 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한 때였고 더군다나 조선인이라는 점 하나로 이유도 없이 학살을 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학대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니시무라는 김바위와 이강산을 일본의 스모대회에 번외 형태로 참가시켜 자신들의 國技인 스모가 조선의 씨름보다 우월한 스포츠임을 널리 알리고 간접적으로 조선인이 비참하게 지는 것을 보면 일본관중들은 대리만족을 얻게될 것이라는 악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 니시무라는 김바위와 이강산에게 씨름선수로서 아까운 재능을 썩히지 말고 그 실력으로 일본에 가서 스모선수들과 시범대전을 몇 번만 벌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그들을 유혹한다. 순진했던 김바위와 이강산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우리 고유의 씨름으로 일본의 스모를 압도한다면 그들의 코가 납작해져 조선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그들이 니시무라와 동행하여 일본에 도착했을 때 신문의 광고와 동경 시내 곳곳에서 나무끼는 플래카드에는 조선에서 온 씨름선수와 일본의 스모선수가 격투를 벌인다는 내용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기 시작했고 이를 본 일본인들은 장사꾼인 니시무라의 예상대로 조선의 씨름선수가 처참하게 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경기장에 구름같이 몰려든다.

경기의 규칙은 씨름과 스모가 서로 시합방법이 조금씩 다른 만큼 양쪽이 차이가 나지 않게 조율을 한다. 가령, 씨름의 규칙인 살바는 차되 스모처럼 서로 떨어져서 경기를 하고 경기장은 씨름처럼 모래를 깔되 스모처럼 밀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 나간 선수가 지는 형식으로 씨름과 스모의 규칙을 반반씩 적용하기로 한다.

김바위와 이강산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경기장의 살기등등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스모선수들의 육중한 몸매에 밀려 처음 몇 일 동안은 경기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그런 장면을 보며 환호작약하는 일본 관중들과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니시무라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니시무라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에 도착한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점차 경기장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스모의 특성을 몸으로 부딪치며 과약한 김바위와 이강산은 예전의 씨름실력을 보이면서 서서히 스모선수들을 제압하기 시작한다. 날이 갈수록 일본의 내노라하는 스모선수들이 김바위와 이강산에게 번갈아가며 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어찌다 지는 것이려니 여겼던 일본관중들이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한다. 특히, 밀어치는 것 외에는 별 특별한 기술이 없는 스모보다 다양한 기술과 호쾌한 승부를 보이는 씨름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넘어 시기심이 극에 달하면서 김바위와 이강산에게 살의를 가진다.

그러나 일본관중들은 아직까지는 일본 스모계의 요코즈나(챔피언인 1위에 대한 호칭)인 스즈끼가 뒤에 버티고 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경기를 관람한다.

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결과에 경기주최를 한 니시무라는 적지 않게 당혹해 하면서 확실하게 요코즈나인 스즈끼가 김바위와 이강산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는 스즈끼 측에 연락하여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아예, 김바위와 이강산이 다시는 씨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라는 비정한 주문까지 한다.

스즈끼와의 대결을 앞둔 날 저녁, 김바위와 이강산을 방문한 니시무라는 마치 그들을 염려한다는 듯 특별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음식에는 환각성분이 들어있어 그 음식을 먹고 잠든 김바위와 이강산은 경기 당일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니시무라의 간교한 계획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김바위와 이강산은 몸 상태가 안 좋아 경기를 연기하려 하나 연기하게 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니시무라의 반협박에 못 이겨 거의 강제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된다.

김바위와 이강산이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요코즈나인 스즈끼는 이미 모

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야비한 웃음을 흘린다.

준결승과 결승경기가 열리는 그날, 김바위가 일본의 2위인 선수와 먼저 맞붙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겨우 이기나 온 몸의 힘이 모두 빠져버린 상태가 된다.

다음으로 열린 준결승은 이강산과 스즈끼의 대결. 이강산도 온 힘을 다해 스즈끼를 몰아붙이지만 약을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일본 최고의 스모선수를 당해내지 못한다. 더군다나 스즈끼는 니시무라에게 부탁받은 것을 충실히 수행하듯 이강산이 이미 바닥에 넘어져 승부가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산의 발을 꺾어 부러뜨린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강산을 보며 스즈끼는 손을 들어 자신의 괴력을 자랑하듯 소리를 지르고 일본 관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열광한다.

땅바닥을 기는 이강산을 보며 김바위는 분노에 차 스즈끼에게 덤벼드나 오히려 옆에 있던 다른 스모선수들에게 붙잡힌 채 땅바닥에 누이게 된다. 김바위 앞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스즈끼를 보며 관중들은 죽이라고 외치고 스즈끼는 그 육중한 몸을 김바위의 몸 위로 던져 충격으로 기절을 시키고 이어 목뼈를 부러뜨려 김바위를 죽이고 만다.

며칠 후, 부러진 다리에 각목을 하고 절뚝거리며 화장장을 찾은 이강산은 억울하게 비명에 간 친구의 유골을 수습하며 분노와 슬픔으로 통곡을 한다.

그날 밤, 귀국을 위해 니시무라의 사무실을 찾았던 이강산은 문밖으로 들려오는 니시무라와 스즈끼, 그리고 몇몇 일본인들의 웃음과 말소리를 들으며 지금까지의 일이 모두 니시무라와 스즈끼의 간교한 계획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자신과 친구인 김바위가 그 희생양이 되었음을 깨닫고는 복수를 맹세한다.

● 현재형으로 되돌아 오

이윽고 이강산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짜지와 이엄지는 굵은 눈물을 흘린다.

이강산은 얼마간의 돈을 김짜지에게 주면서 어차피 고향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서울인 한양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한다. 서울의 종로에 자신이 잘 아는 후배가 포목점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일을 배우고 있는 동안 자신도 가산을 정리하여 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한다.

며칠 후, 김짜지는 서울로 올라와 그 포목점에서 열심히 일을 배운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이 일하는 포목점 앞에서 조선의 주먹패들과 일본의 주먹패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싸움은 중과부적으로 조선의 주먹패는 3명인 반면 일본의 주먹패는 8명이어서 일방적으로 물리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며 김짜지는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로 떨지만 고향에서 일본순사들에게 잡혔던 기억으로 쉽게 덤비지를 못한다. 그러나 주인아저씨의 ‘동족이 맞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거냐’라는 이야기에 분연히 일어서 일본인 주먹패들을 그 엄청난 힘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김짜지의 공격에 일본 주먹패들은 모두 도망가고 이를 지켜보

던 조선의 주먹패들과 상인들은 김짜지를 향해 힘찬 박수를 친다.

몇시간뒤 그 포목점에 종로주먹패의 두목이며 상인들의 영웅인 김두한이 들어선다.

그리고는 반갑게 맞이하는 포목점 주인에게 김짜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다.

서울에 올라와 김두한의 명성에 대하여 익히 듣고 있었던 김짜지는 김두한이 직접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하면서도 어려운 생각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

아까 일본주먹패들에게 맞던 김두한의 부하 3명이 김짜지의 활약상을 감탄하듯 이야기하고 있었고 포목점 주인으로부터 김짜지에 대하여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김두한은 환한 웃음으로 김짜지를 얼싸 안으며 ‘이 종로에서 일본인들을 이길려면 자네같이 성실하면서도 씨름등 다양한 운동을 한 기운센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한다. 일본에 대하여 복수의 일념에 불타던 김짜지는 일본인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일이라면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고백한다.

그날 저녁, 김짜지는 종로의 새로운 주먹패로 참여하게 되고 자신을 뜨겁게 환영해 주는 주먹패들과 함께 흥겹게 술에 취한다.

그날 이후, 김짜지는 종로의 주먹패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일본주먹패들로부터 <차돌바위>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간다.

이렇게 점차로 조선의 주먹패들이 일본의 주먹패들을 압도하면서 점차 분위기가 조선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과 함께 항일의 분위기로 흘러가자 일본 주먹패의 두목인 하야시는 이런 분위기를 크게 염려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애를 태우던중 예전부터 자신의 비호아래 조선에서 악랄한 상행위를 펼치던 장사꾼 니시무라와 연결된다. 니시무라는 예전 자신이 일본에서 개최했던 씨름과 스모대회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준 점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조선땅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인들의 기를 꺾어줄 기회라고 조언해 준다. 하야시도 스포츠라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일본의 우월성을 알릴수 있고 조선인들의 사기도 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만족하면서 조선총독부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의도하는 행사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한다.

『현재, 종로를 중심으로 조선의 주먹패들이 그 세를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세력의 확산이 나아가서는 항일의 분위기로 흐를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인들의 사기를 꺾고 대일본제국의 위대함을 조선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본과 조선의 國技인 스모와 씨름의 대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양쪽에서 대표가 32명씩 출전해 3일간 토너먼트식으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일본은 최고의 스모선수들을 출전시켜 조선의 씨름선수들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자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조선인들이 조선씨름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경남의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國技인 씨름이 스모에게 무참히 지는 것을 바라볼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흐뭇해집니다. 조선의 전지역에 알려 주십시오. 내노라하는 씨름꾼들은 전부 모이라고 말이지요. 앞으로 3달후에 이 대회를 경남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일후, 조선의 전국 방방곡곡에 조선총독부가 주최하는 <日朝간 우호를 위한 스모-씨름 대회>가 경남지역에서 개최된다는 대자보가 붙여진다.

몇일후, 김짜지는 김두한의 부름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김두한은 조선총독부가 개최하는 스모-씨름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김짜지에게 전해주면서 그 대회는 겉으로는 조선과 일본간의 우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조선민족의 기를 꺾어놓기 위한 총독부와 하야시의 간교한 계획임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의도를 꺾어버리고 일본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김짜지가 고향인 경남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김두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짜지도 출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본인은 정식으로 씨름을 배운적이 없으며 그냥 어깨넘어 보고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경험밖에 없어 본격적인 시합에 나서기는 무리라면서 자신 없어 한다. 김짜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두한은 정식으로 씨름을 배우게 해주겠다며 예전에 김짜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던 포목점 주인을 찾아간다.

거기서, 포목점 주인으로부터 김짜지를 소개해준 자신의 선배인 이강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는 김두한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강산을 서울로 모셔오도록 한다.

몇일후, 다시 김두한의 부름을 받은 김짜지는 김두한의 사무실에서 이강산, 이엄지와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되고 이강산이 씨름을 가르쳐 준다면 짧은 시간이나마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운다.

그날 이후, 김두한과 종로 주먹패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김짜지는 씨름연습에 비지땀을 쏟는다.

거구의 스모선수들과 대결인만큼 주먹패거리들중 가장 덩치 큰 인물 3~4명을 뽑아 그들을 상대로 각종 다양한 씨름기술을 구사한다. 호미걸이, 덧걸이, 들배지기등 다양한 기술을 이강산으로부터 전수받는 김짜지는 특히, 아버지인 김바위가 씨름의 기술중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뒤집기의 달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뒤집기의 기술연마에 최선을 다한다. 이강산의 열정적인 지도와 천부적인 소질을 통해 김짜지는 점점 씨름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확보해 간다.

그런, 힘든 과정중에도 밤이되면 오랜만에 만나 더욱 성숙해진 엄지와의 데이트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속삭인다.

2개월 후, 경남에서는 본 대회에 출전을 위한 씨름선수들간의 예선전이 펼쳐진다.



예선전에는 특히, 대회를 주관한 하야시와 니시무라가 조선 씨름선수들의 실력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대거 참관한다. 참관하는 무리들속에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니시무라를 발견한 이강산은 김두한에게 니시무라에 대한 과거의 사연들을 설명하고 그가 이번대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다. 반대로 니시무라도 경기에 임하는 김짜지의 코치가 과거 자신이 불구로 만들어 버렸던 이강산임을 기억하고는 김짜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이강산은 사전에 김짜지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하기 위한 전략으로 김짜지에게 자신의 실력을 감추고 가까스로 대표팀 32명속에 끼어들도록 경기를 하라고 코치한다.

이러한 이강산의 바램대로 김짜지는 완급을 조절하면서 겨우 턱걸이를 하여 32명속에 포함되어 별볼일 없는 선수로 보여진다.

몇일후, 김두한과 만난 이강산과 김짜지는 김두한으로부터 니시무라가 본대회에 관여하게된 동기와 또한 일본측의 선수단 단장이 김바위를 죽인 장본인이며 이제는 은퇴하여 후진양성에 몰두하고 있는 스즈끼라는 사실을 듣고는 복수의 일념에 불탄다. 반대로, 장면전환이 되면서 니시무라는 하야시로부터 참가하는 김짜지가 과거 자신이 죽게 만든 김바위의 아들이고 이강산은 그의 코치로 참가하고 있음을 전해 들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대회 시작 1주일전, 양쪽 선수단의 명단이 확정이 되고 그중 일본의 대표격인 요코즈나로는 스즈끼의 아들인 야마시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선수명단 발표후 김짜지와 이강산은 경기가 열리는 경남으로 훈련장을 옮기고 더욱 훈련에 박차를 가한다.

드디어, 대회 개최일, 양측의 선수들은 조별로 배정을 받아 토너먼트별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대회 입장식에서 니시무라와 이미 니시무라로부터 이강산과 김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스즈끼가 절뚝거리며 등장하는 이강산을 바라보면서 조롱섞인 비웃음을 짓고 이를 바라보던 이강산과 김짜지는 다시한번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한다.

경기장에는 양측의 자존심이 걸린 터라 조선과 일본의 관중들로 가득차고 특히, 세를 과시하듯 김두한과 하야시는 자신의 부하들을 대거 이끌고 관중석에 자리를 잡는다.

총독부에서 파견된 일본순사들도 경기장 곳곳에 배치되어 조선인들의 동태를 감시한다.

이윽고 대회가 시작되고 선수들은 조국과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임하고 2일째까지 피나는 혈투를 벌이나 심판의 일본측에 유리한 판정으로 결선이 시작되는 마지막날에 일본측은 11명이, 조선의 씨름선수는 5명의 선수가 남게 된다.

일본의 요코즈나인 야마시타는 역시 그의 기량을 과시하듯 씨름선수든 스모선수든 걸리는 대로 넘어뜨리거나 던져버려 단시간에 승부를 낸다. 이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인 스즈끼와 니시무라, 하야시등은 흐뭇해 하고 일본 관중들도 열광해 한다.

반면, 김짜지도 서서히 자신의 실력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스모선수들을 다양한 기술로 제압하고 결선에 진출한다.

대회 마지막날, 조선총독이 직접 참관하는 가운데 대회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양측의 내노라하는 선수들은 서로의 얼굴들을 노려보며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특히, 김짜지와 야마시타는 서로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서로간에 얹힌 舊怨을 생각한다.

이윽고, 결선이 시작되고 본선의 예선전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기양상이 벌어진다.

특히, 김짜지는 예선때와는 달리 씨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측은 적지않이 당황해 하고 조선측은 열광 한다.

드디어 4강이 결정되는데 주최측인 총독부의 일본인 심판들로 구성된 심판진은 계속 조선의 씨름선수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고 결국 김짜지 1명에 야마시타를 포함한 스모선수 3명이 4강에 합류하게 된다. 씨름선수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때마다 종로의 주먹패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선관중들은 야유를 보내나 심판진들은 스모선수들의 승리를 위해 서슴없이 불리한 판정을 계속한다.

준결승이 시작되기전 20분간의 휴식시간이 내려지고 김짜지의 선전에 당황한 하야시와 니시무라, 스즈끼는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다.

그 자리에서 니시무라는 다시한번 비겁한 술수를 하야시와 스즈끼에게 제의하고 일본과 스모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짓이라도 할 하야시와 스즈끼는 그 제의에 찬성한다.

잠시후, 스즈끼는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대기실로 찾아가 김짜지와 대결할 스모선수에게 조그만 최루가루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면서 가루를 손에 듬뿍 묻힌다음 경기중에 서로 엉켰을 때 김짜지의 눈에 손을 비벼 눈을 뜰수 없게 만들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야마시타와 대결할 또하나의 스모선수에게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일부러 야마시타에게 지라고 당부한다.

이런, 비겁한 계략을 꾸꾸는 줄도 모르고 김짜지와 이강산은 작전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드디어, 준결승전이 시작되고 먼저, 시작된 야마시타의 경기는 시작된지 30초만에 상점게 끝나고 만다.

그런 장면을 보고 관중석에서는 조선관중들의 짜고서 시합을 한다는 야유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선수들의 감시도 한창 살벌해진다.

다음 경기인 김짜지와 스모선수와 경기의 예상대로 재빠르게 김짜지가 스모선수를 붙잡고 들배지기를 하는 순간, 최루가스가 듬뿍 발라진 스모선수의 손은 정확하게 김짜지의 양쪽 눈을 비비고 스모선수를 내동대이 쳐지면서 김짜지의 승리가 결정나지만 자신의 눈을 부여잡고는 고통스러워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강산은 일본측에서 반칙을 썼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들의 악랄함에 치를 떤다. 관중석에서는 조선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스모선수가 반칙을 했음을 지적하나 심판진은 이를 무시하고 결승전의 바로 속개를 지시한다.

규정대로라면 결승전이 열리기전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으나 조선총독이 총독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휴식없이 바로 결승전을 진행한다는 심판진의 악의적인 발표에 조선의 씨름선수들뿐 아니라 관중들은 심판진들의 부당함을 성토했으며 항의한다. 이에 놀란 일본 선수들은 곤봉등으로 조선관중들을 내려치며 진압하고 이들의 기세에 눌린 관중들은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에 앉는다.

심판은 양측 선수를 경기장에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10을 셀때까지 경기장에 올라오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최루가스로 눈도 제대로 뜯수 없는 김짜지는 어쩔수 없이 더듬거리며 경기장에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며 상대방인 야마시타와 관중석에 있는 스즈끼, 니시무라, 하야시등은 득의양양한 웃음을 짓는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고 야마시타의 파상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겨우 실눈을 뜨는 정도의 김짜지는 야마시타의 공격을 가까스로 피하며 방어한다. 그러나 곧, 살바를 잡히게 되고 야마시타는 그 육중한 몸으로 김짜지의 등을 내리누르며 그의 얼굴을 땅에 눌러 승부를 결정지으려 한다.

그러나, 김짜지도 강철같은 다리힘과 허리힘으로 야마시타의 체중을 견디며 빠져나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다. 야마시타는 그대로 눌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살짝 몸체를 들었다가 내려 찍으려는 순간, 그 찰라에 김짜지의 머릿속으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 김바위의 '뒤집기로 야마시타를 꺾어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내리 찍는 야마시타의 몸이 자신의 등에 부딪치는 순간 김짜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야마시타를 들어올리고 야마시타의 몸은 허공을 돌 듯 위로 솟구쳐졌다가 경기장 밖으로 패대기 쳐진다.



땅바닥에 길게 뻗은채로 누워있는 야마시타를 보며 김짜지는 감격에 겨워 바닥에 있는 모래를 집어들어 하늘로 뿌리며 씨름선수만이 누릴수 있는 모래춤을 춘다.

이 엄청난 모습에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있다가 이강산과 이엄지가 기뻐하며 김짜지에게 다가가고 김두한 일행도 서로 껴안으며 좋아하고 일제히 조선의 관중들도 열싸안으며 환호한다.

반면, 당황한 일본인들은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경기장을 바라보고 스즈끼와 니시무라는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야마시타에게 다가간다.

야마시타는 떨어지는 충격으로 입에서 개거품을 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며 화가난 스즈끼는 김짜지가 고의적으로 야마시타를 경기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하면서 순사들에게 김짜지를 체포하라고 소리지른다.

조선총독도 분한 마음으로 바라보다 스즈끼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김짜지를 체포하라고 명한다. 그런, 총독의 처사에 김두한과 부하들이 일어서서 거칠게 항의를 하자 순사들과 하야시의 주먹패들이 몰려들어 김두한과 부하들을 덮친다. 이런 장면을 보고있던 조선의 관중들은 모두가 일어나 진압하는 순사들에게 대항하며 경기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그 와중에 김두한과 부하들은 김짜지와 이강산, 이엄지를 보호하느라 여념이 없고 무리를 지어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순간, 이강산은 경기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니시무라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김두한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다. 잠시후, 경기장을 빠져나온 니시무라는 10년 감수했다는 듯 교활한 얼굴로 급히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그 앞에는 김두한의 부하들이 줄을 서있다. 니시무라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깨닫고는 뒷걸음을 치는 순간 뒤에도 김두한의 부하들이 나열해 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있는 니시무라의 눈에 김두한의 부하들 등뒤에서 다가오는 이강산의 모습이 보인다. 이강산이 절뚝거리며 니시무라의 앞에 서자 니시무라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이강산에게 목숨을 구걸한다.

이윽고, 이강산의 친구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고 말이 끝나자 마자 이강산은 아직까지도 완력이 남아있는 팔뚝으로 염소같은 가냘픈 니시무라의 목을 부러뜨려 죽인다.

다음날, 일본순사들의 추적을 따돌린 김짜지와 이강산, 이엄지는 서울로 올라가는 김두한과 일행을 환송하기 위하여 기차역앞에 서있다.

고향에 남아 자랑스러운 민족의 유산인 씨름을 발전시켜 조선 최고의 씨름선수들을 양성하겠다는 김짜지와 이강산의 말에 김두한도 아쉬운 작별인사를 한다.

기차가 도착하고 김두한과 부하들이 탄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김짜지와 이강산, 이엄지는 손을 흔들며 기차가 사라질때까지 바라본다.

- 끝 -